



전 경 자 교수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

소규모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국제학술회의를 다녀와서

필

자는 지난 5월4일부터 5월6일까지 핀란드의 헬싱키에서 개최되었던 International Symposium for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in Small-scale Enterprise에 참석하였다. 이 학술행사는 핀란드 산업보건청(FIOH, Finnish Institute of Occupational Health)과 핀란드 노동부 및 보건사회부(Ministry of Labour and the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in Finland)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것이었다. 필자의 발표논문은 'Facilitating Factors of and Barriers to Performance Improvement of SSE Occupational Health Personnel in Korea'로써 우리나라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기술지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것이었다.

학술회의는 소주제별 주제강연자와 연제 발표, 포스터 전시로 이루어졌다. 주제 강연의 연자는 ILO, 미국, 스웨덴, 영국 등 11개국의 전문가로 선정되어 있고, 연제발표는 유럽, 미국, 아시아 등에서 총 64편, 포스터 발표는 33편으로 여러나라에서의 다양한 경험이 소개되었다. 전체 주제는 'From Protection to Promotion'로 설정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소규모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현황, 산업안전보건인력의 역할 및

서비스, 예방 및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과 전략, 사례, 인력의 기술과 능력, 산업안전보건의 소규모사업장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의 소주제로 세분되었다.

주제강연이나 발표논문의 전반에 걸쳐 제시되었던 것은 현재와 미래에 걸쳐 경제활동에 있어서 소규모사업장이 갖는 중요성과 의의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국가간 법률의 차이, 경제수준의 차이, 주요산업의 차이 등으로 인해 소규모사업장의 특성이 결코 동질적이지 못하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또한, 소규모사업장에는 여성, 아동, 노인 등 취약근로자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므로 이들을 보호하고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유해위험공정이 이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학회에 참석하는 동안 필자에게 새로웠던 것은 소규모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논의를 두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토의하고 관심을 갖는다는 점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안전과 보건의 분리가 되어 정보와 기술의 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시사하는 바가 컸다. 또한,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민간기관의 참여가 상당히 많았고, 이들이 수행하는

연구활동이 매우 활발하다는 점이였다. 이들에게 소규모사업장은 잠재적인 서비스 수요자로서의 의의를 지니는 듯했다.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개발하고, 이를 상품으로 하여 각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써 민간기관이 해야할 몫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필자가 만났던 산업보건기관에서 일하는 인력들은 전공분야가 다양하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과 사명감이 대단히 큰 것 같았다. 물론, 정부의 역할 또한 소홀히 수행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는데, 노동부 관료들이 발표자로 나서서 소규모사업장의 산업안전과 보건서비스의 비용편익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모습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학술회의가 끝나던 5월 6일 오후에는 Finnish Institute of Occupational Health를 방문하여 활동 및 시설을 견학할 수 있었다. FIOH는 세계보건기구와 국제노동기구가 인정하는 산업보건전문기관으로 국제적인 수준에서 산업보건을 주도하는 많은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주요활동으로는 산업보건에 관한 연구, 교육 및 훈련, 서비스 제공, 국제교류 등을 들 수 있으며 헬싱키 본부에 역학 및 통계부서, 생리학부, 물리학부, 심리학부, 산업의학부, 산업위생 및 독성학부, 산업안전부가 있으며 산하기관으로 정보서비스센터, 산업보건서비스를 위한 연구개발센터, 작업능력센터(Work Ability Center)와 6개 지역분부를 두고 있다. 1990년대 이후 2000년까지의 주요 프로그램은 Development of Occupational Health Service, Allergy and Work, Indoor Air and Environment, Workplace 2000, Small Workplace, Work in the Cold, Human Resources for Work 등이다. 특히 소규모사업장에 관한 프로그램은 1995년에 시작하여 2000년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소규모사업장과 근로자의 안녕을 증진시키고 산업보건서비스와 산업안전의 전문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실제 작업현장에서는 산업보건서비스기관의 협력을 통해, 그 다음 부문수준에서는 기업과 정부당국의 협력을 통해, 세 번째로 전체 차원에서는 언론 등 매체를 통해 전개된다. 이 프로젝트에 116개의 산업보건서비스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요구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소규모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일반인들보다 근골격계 통증을 더 자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strain injury가

가장 흔한 직업관련성질환이었다고 한다. 파악된 요구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약간 다르게 프로그램이 개발되었고, 근로자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의 경우 개선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경영스타일과 마케팅을 가장 빈번하게 언급하였다.

끝으로, 필자가 학회에 참석하는 동안 만났던 두분의 산업간호사를 소개하고 싶다. 한 분은 스웨덴의 한 병원의 산업 및 환경의학부서에 소속되어 일하고 있는 Sofia Loodh인데, 그녀는 소규모사업장 중에서 미용실을 대상으로 미용사들의 건강문제에 대한 조사결과를 포스터로 제작하여 발표하였다. 4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그녀는 실제 사업장에서 10여년동안 산업간호사를 일을 했었고, 그후부터 산업보건기관에서 계속 일해 왔다고 한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매우 가깝고, 교류도 많기는 하지만,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동료들과 함께 국제학회에 참석하여 간호사인 Sofia가 직접 포스터 발표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는 것이 놀랍기도 했다. 또한, 필자가 간호사임을 알려주자 아주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며 친절하게 스웨덴의 산업간호사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다. 필자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더니, 정말로 학회에서 돌아온지 열흘 후에 바로 그가 보내준 자료들을 받아볼 수 있었다. 그가 산업간호사로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기회가 되면 한번 직접 관찰하고 싶을 만큼 신뢰가 가는 사람이었다. 또, 한 분은 핀란드 산업간호협회 사무국장인 Anne Bostrom이다. 30대 중반의 활발한 성격의 그녀는 사전연락 없이 요청한 면담을 쾌히 승낙해주었고, 직접 공항까지 필자를 데려다주면서 핀란드 산업간호사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다. 핀란드 산업간호사들도 역시 사업장 내에서 일하거나 밖에 있는 산업보건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아주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독립적인 산업간호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핀란드에서는 산업간호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의 교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하였다. 산업간호협회의 사무국은 헬싱키에 있지만, 회장은 헬싱키에서 1시간정도 떨어진 지역의 노동행정부서에서 일하는 산업간호사가 맡고 있었다. 협회의 조직과 활동은 한국산업간호협회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서로 확인할 수 있었고, 앞으로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주고 받기로 약속하였다.